

전남 학부모들 “시, 교육격차 해소 먼저”

도교육청, 지역민·학부모 2000명 설문…“군, 지역 안전”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 군 지역’ 학부모들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도교육청 우선 추진 정책으로 제시한 반면 인구가 밀집된 ‘시 지역’은 ‘교육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유·초·중·고 학부모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4기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2.2%)를 실시했다.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에 지역민·학부모 37%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1순위로 제시했으며 교육격차 해소(32.8%), 지역소멸 위기 대응(32.3%), 교육력 제고(17.8%), 지역 사회 협력(15.3%), 신뢰 행정(7%)을 꼽았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시 지역’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조사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시 지역 학부모는 교육격차 해소 36.7%, 안전한 교육환경 36.3%, 지역소멸위기 대응 32.5%, 교육력 제고 18.9%, 지역 사회 협력 8.9%로 조사됐다.

반면 군 지역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소멸위기 대응 32%, 교육격차 해소 29.4%, 지역사회 협력 16.7%, 교육력 제고 16.3%, 신뢰행정 4.5%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유·초·중·고 자녀가 있는 30대~50대의 경우 교육격차 해소를 1순위로 제시했지만 손자를 돌보고 있는 60대 이상은 42.2%가 ‘안전한 교육환경’에 응답했다.

또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치원·중등·고등 학부모는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초등 학부모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요구했다.

‘3대 사망사고 제로 시민실천단’ 본격 활동

하남산단 일대서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안 홍보활동



광주시는 ‘3대 분야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산업재해 분야 제로화를 위한 시민실천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발족한 3대 분야 사망사고 줄이기 시민실천단은 21일 출근시간대 하남산단 일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첫 활동을 펼쳤다.

시민실천단은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5월 14일~6월 30일) 운영에 따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평가방법 다양화 ▲평가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결과의 공유 등의 내용을 담아 위험성평가 지침을 개정했다.

시민실천단은 7월에는 산업안전 보건의 달을 맞아 관련 홍보를 실시하는 등 매달 주제를 정해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 교육

전문강사 초청, 상황별 사례·관련 법령 중점 교육



광산구는 21일 구청 7층 운상원 홀에서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인 계약관리,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상황별 사례와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을 중점 교육했다. /이동기 기자

광주동부교육, 동구청과 교육협치 머리 맞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20일 동부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동구청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2023년 동부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21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동구청과 앞으로의 교육발전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

해 마련됐다. ▲지한초 통학 여건 개선 ▲광주남초 주변 도로미끄럼 방지 적색 포장 요청 ▲광주남초 통학로 시니어 교통 봉사 확대 요청 ▲동구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홍보 ▲유소년 스포츠활동 수요조사에 관한 협조 등 1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주 기자

“수능, 공교육 교과과정 출제 바람직”

광주 진학부장 “학년초부터 준비되지 못해 아쉬워”

“2024학년도 대입수능 EBS 연계율 높아질 듯”

광주지역 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은 21일 “2024년 대입 수능시험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출제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학년 초부터 준비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2024수능 전망, 교과별 대비 방안’에 대해 분석·발표했다.

광주진학은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수능시험 출제 기조·출제

범위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다”며 “앞으로 시행될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비문학 융합 지문 출제 여부, 공정한 변별력을 위한 수학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변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어의 경우 6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지문의 내용 자체는 어려웠지만 EBS 교재와 간접 연계된 지문이었다”며 “수능도 1등급 5~7%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변별력은 갖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와 EBS 수능연계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며 “EBS 50% 연계가 이번 수능에 구체적인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수능 시험일까지 학교수업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 방안이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무사고 출동 3천회’ 전남 닥터헬기…전남도 기념행사

2011년 9월 운항 이후 11년 9개월만…2801건 이송 성공



전남지역 섬과 오지를 오가며 소중한 생명을 구해온 하늘의 응급실 ‘닥터헬기’가 무사고 출동 3000회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 닥터헬기 계류장에서 ‘무사고 출동 3000회’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목포한국병원 의료진과 헬기 운항사 ㈜헬기코리아 관계자

들이 함께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11년 9월22일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운항 11년 9개월 만인 지난 12일 출동 3000회를 기록했다.

3000회째 출동에선 완도에 거주하는 70대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완도대성병원 응급실에서 목포한국병원으로 성공적으로 이송했다. /김호 기자

그간 전체 이송 성공 건수 2801건 중 32.4%를 차지하는 908건은 항공이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환자였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17곳이나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서 동쪽으로 거문도, 서쪽으로 국도 최서남단인 가거도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전남광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신속하게 인접 타 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도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섬이 많은 전남은 닥터헬기가 응급환자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낙도까지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인계점 확보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장치 등 전문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구비한 이동 응급실이다.

서구, 청결한 골목상권 조성

‘클린가게·클린상가’ 운영

서구는 ‘내 상가 앞, 내가 쓸기 운동’ 추진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클린가게·클린상가’ 사업장을 모집한다.

서구는 지난해 금호동 먹자골목 중심지로 환경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클린가게·클린상가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오는 7월부터 사업 대상을 서구 18개 동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구는 클린상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공청 및 빗자루, 쓰레받기 등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매월 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사업장의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참여사업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내 상가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정착시켜 깨끗한 상가환경 제공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찾아올 수 있는 서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전남 6개 대학’ 선정

목포대·동신대 등…2년간 매년 국비 10억 지원

전남도는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공모에서 목포대 등 전남 6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LiFE 2.0 사업은 대학의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 과정을 위한 LiFE 1.0 사업(2019년~202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

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LiFE 2.0에선 광역지자체와 일반대학 2개 교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참여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을 새로 도입해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

공모에 선정된 6개 대학은 목포대, 동신대를 비롯해 목포과학대, 전남과

학대, 순천제일대, 조당대다.

이들 대학은 2024년까지 2년간 대학별로 매년 1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도내 6개 대학의 LiFE 2.0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대학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협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

북구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로컬콘텐츠는 어떻게 로컬브랜드로 성장하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유명 로컬크리에이터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사례발표, 창업 토크,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어서어서’, ‘10년후그라운드’, ‘와이드 웨이브’, ‘파르름 삼각’, ‘민심사이다’ 등 5개 로컬업체 대표들이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창출과 성공사례를 발표·공유한다.

이어 진행되는 창업 토크에는 청년창업자와 로컬크리에이터간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이외에도 로컬브랜드 상품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는 전시회와 시사회를 열어 참여자들 간 창업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우리 지역만의 콘텐츠로 성공 창업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4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라운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자들의 디저트 메뉴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창업 점포 임대료 지원, 창업 공간 지원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구 관광객 유치 ‘동구 관광시티투어’ 운영 돌입

문화전당·동명동 카페거리 관광명소…1박2일 체류 인기



동구는 이달부터 서울(수도권)·대구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2023년 광주 동구 관광시티투어’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3번째 접어든 ‘동구 관광시티투어’는 주요 광역도시의 우수 여행사와 연계해 외지 관광객을 동구로 유치하는 관광상품 프로그램으로

지난 3·10일 서울과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첫 운영을 시작했다.

투어 코스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포함해 동명동 카페거리, 지산유원지, 광주폴리, 총장로 등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과 함께 카페거리에서 드립커피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출발해 동구에서 1박 2일로 머무르는 ‘체류형 광역시티투어’와 대구에서 출발해 테마로 당일 운영하는 ‘달빛시티투어’로 구성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20회 정기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체류형 광역시티투어’는 7만9000원, ‘달빛시티투어’는 1만 9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수도권 담당 ‘여행공방’(1644-7786)과 대구지역 담당 ‘삼성여행사’(053-431-3000)로 문의.

입력 동구청장은 “동구 관광시티투어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추진 중인 역점사업 중 하나다”면서 “동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코스에서 함께라서 좋은 지인, 가족들과 함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